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컨설팅

무주군, 요양원 · 주간보호센터 ·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 맞춤형 교육 · 대응 방안 등 공유

무주군이 코로나19 신종변이와 재 유행에 대비해 감염취약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 및 현장 컨설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주군이 코로나19 신종변이와 재 유행에 대비해 감염취약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 및 현장 컨설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상은 무주읍 평화요양원을 비롯한 요양원 6곳과 햇살가득한노인복지센터 등 주간보호센터 7곳, 장애인 거주시설 하은의 집 등 총 14곳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김미화감염병관리팀장은 이달 말일까지 시설을 직접 방문해 소독 방법과 환기 기준 등 방역수칙(보호구 착용, 신속항원검사 등 포함)에 대해 교육하고 확진자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시설 맞춤형으로 공유한다.

또 요양시설과 의료원 간에 핫라인을 유지하고 시설 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코로나19 4차 접종에 힘쓰는 등 대응체계 구축과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대면 진료, 처방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진료 기관을 확대하고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1일 이내 검사,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 △필요 시 신속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도 구축할 방침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동훈 과장은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컨설팅은 혹시나 모를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관리 활동"이라며 "우리 지역이 고령층이 많고 고령층에서 위중증 발생률이 높은 만큼 대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의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21일 현재 17명(누적 인원)으로 그간 고령층이 많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방제 · 의료지원 활동으로 귀감이 돼 왔다.

군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 · 일반 관리 군에 대한 맞춤형 건강모니터링(하루 2번, 체온 및 신체 증상 이상 유무 등), 기초 건강 상담과 약 처방 및 전달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일반 관리군에게는 제공되지 않던 의료키트(체온계, 소독약 등)와 식료품(즉석요리류)을 지원하고 밀접 접촉자 확인 등 전화역학조사 체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민 편의를 도왔다.

이외에도 재택 치료가 일상화되면서는 환자 또는 동거인을 분리할 수 있는 일상회복 안심숙소를 지정 · 운영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데 주력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부, 한국전쟁 참전 故 김팔만 씨에 화랑무공훈장 추서

황인홍 무주군수, 자녀 김경남 씨에 수여

황인홍 군수는 21일 오전 자녀(장남) 김경남씨(77세 · 무주군 무주읍)에게 6 · 25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정부는 한국전쟁에 참여해 전투중 부상을 입은 무주출신 고(故) 김팔만 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지난 1952년 2월 입대한 고(故) 김씨는 육군 제8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금하지구 금성 · 원동면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제대했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 21일 오전 자녀(장남) 김경남씨(77세 · 무주군 무주읍)에게 6 · 25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김 씨는 "아버님의 무공훈장을 대신 받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선열들로 인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방부 소속 6 · 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은 6 · 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아직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게 6 · 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경축순환 농업연구 현장평가회

장수농기센터, 가축분퇴비 활용 브로콜리 재배 효과 검정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서 전북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가축분퇴비를 활용한 브로콜리 재배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경축 순환 농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볏짚 등의 부산물을 다시 활용해 퇴비로 만들어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 내 농축산업 연계를 높여 지역 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농업이다.

이번 평가회에는 브로콜리 재배농가와 타 시 ·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로콜리(품종 쏠라, 나이스그린)의 가축분입상퇴비, 가축분분상퇴비, 유박비료(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화학비료) 시험구별 생육상황 및 식미 등을 평가했다.

평가회에서 사용된 브로콜리는 4월 20일에 정식한 것으로, 5월 하순 실시한 중간 생육조사(초장, 엽장 등) 결과 각 퇴비 시험구별 차이가 비슷했으나, 가축분입상퇴비를 사용한 구간에서 브로콜리 수량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수군은 본 실증시험을 통해 가축분뇨 소비를 확대해 원재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유박비료(유기질비료) 및 무기질비료(화학비료)를 가축분퇴비로 대체해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순화구조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실증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을 순환해 농업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축분입상퇴비 활용 현장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접수기간 운영

진안군은 21일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오는 7월 1일~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한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 신고 시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은 관내 지정된 2개 동물병원(진안동물병원, 유가축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군민은 예산 소진 시까지 마리당 2만원의 내장형(칩)등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 진안군 내 반려동물 등록 의무지역은 진안읍이며, 이외 10개 면은 등록 의무 제외지역이다. 하지만 2023년 4월부터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으로 도서지역을 제외한 모든지역이 의무지역으로 전환 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9월 1일부터 9월 31일 한 달 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통합마케팅 실무협의회 개최

진안군은 21일 진안군농협조합공동법인회의실에서 통합마케팅 실무협의회를 갖고 사업 계획 수립구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 최종진 대표이사 및 지역농협 조합장, 장현우 군 농축산유통과 과장 등이 참석해 2022년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와 인센티브 추가 배정액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의 시간을 가졌다.

진안군조공법인은 지난 5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2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도비 5000천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총1억원의 추가사업비로 마케팅 및 상품화 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여름철 우기 대비 도로 배수 · 파손 정비 나서

장수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관내 도로 배수 및 파손 정비에 나선다.

도로 배수로에 토사나 낙엽, 쓰레기가 쌓이면 적은 양의 비에도 배수 기능이 마비되기 쉬워 침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이전 수해지역의 도로 배수를 정비하고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배수관 퇴적토 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 수방자재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점검결과에 따라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도로 보수인력을 활용해 정비하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보수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보수공사를 통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백운면 쾌적한 환경 조성 최선

진안군 백운면(면장 곽동원)은 대내외적인 환경 정비 실시로 백운면을 찾는 주민 및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에 한창이다.

먼저 백운면사무소 인근에 화사한 꽃을 식재하고, 면사무소를 찾는 사람들 누구나 잠시 쉬어 갈 수 있도록 파라솔과 그네를 설치해 경직된 관공서의 느낌에서 벗어나 누구나 찾아와 쉬고 싶은 작은 정원으로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면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질 것을 대비하고, 면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풀베기 작업도 실시한다.

6월말까지 10일간 추진하는 풀베기 사업은 주요 도로변과 취약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742번 지방도와 동창리 동신마을 도로변 등 17개 구간 50.2㎞에서 풀베기작업과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함께 실시한다.

이는 차량 운행 시 도로 변에서의 시야 확보에도 도움을 줘 안전 운행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